

보통 · 생각해서 풀기 (9~16번)

9 보통 밑줄 친 낱말을 잘못 쓴 문장은 무엇일까요?

- ① 감기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.
- ② 놀이터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.
- ③ 친구 생일을 잃어버려서 미안했어요.
- ④ 선생님께서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.

10 보통 빈칸에 ‘안’과 ‘않’ 가운데 알맞은 것을 쓰세요.
“동생은 채소를 먹지 아요.”

11 보통 “할머니께 편지를 ().”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? (편지를 보낸다는 뜻)

- ① 붙였어요
- ② 부쳤어요
- ③ 붓쳤어요
- ④ 붙쳐어요

12 보통 다음 문장에서 틀린 낱말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.
“수업 시간에는 의자에 반드시 앉아요.” (바르게 앉는다는 뜻)

답: _____

13 보통 “수수께끼 정답을 ().”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?

- ① 맞쳤어요
- ② 마쳤어요
- ③ 말혔어요
- ④ 맞혔어요

14 보통 ‘되’와 ‘돼’ 가운데 알맞은 것을 빈칸에 쓰세요. (‘하’와 ‘해’를 넣어 보세요.)
“복도에서 뛰면 안 요.”

15 보통 “나는 커서 과학자가 돼고 싶어요.”는 바르게 쓴 문장이예요.

○ ☐ X ☐

16 보통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쓴 문장은 무엇일까요?

- ① 형이 손가락으로 별을 가르쳤어요.
- ② 봉투에 우표를 부쳤어요.
- ③ 오늘 공부를 다 맞쳤어요.
- ④ 약속은 반드시 지킬게요.

도전 · 한 걸음 더 (17~20번)

- 17 도전 다음 일기에서 틀린 낱말 세 개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.
“몇일 동안 감기에 걸렸다. 오늘은 다 낳아서 학교에 갔다. 그런데 숙제를 잃어버리고 안 가져갔다.”

- 18 도전 ‘가르치다’와 ‘가리키다’를 각각 넣어 짧은 문장을 하나씩 만드세요.

- 19 도전 ‘안’과 ‘않’이 헷갈릴 때 확인하는 방법을 쓰세요.

답: _____

- 20 도전 밑줄 친 낱말이 모두 바른 문장은 무엇일까요?

- ① 며칠 뒤에 퍼즐을 다 맞췄어요. ② 금새 비가 그쳐서 안 젖었어요.
③ 친구 이름을 잃어버려서 다시 물어보았어요. ④ 설겅이를 하고 숙제를 안 했어요.

1. ③ 알을 몸 밖으로 내놓는 것은 ‘낳다’예요.
2. ① 높지 않다는 뜻의 말은 ‘낮다’예요.
3. X 노래를 알려 주는 것은 ‘가르치다’예요. ‘가르쳐 주셨어요’가 맞아요.
4. 며칠 ‘며칠’이 바른 말이에요. ‘몇일’은 틀린 말이에요.
5. 1-나, 2-다, 3-가 물건은 ‘잃어버리고’, 기억은 ‘잊어버려요’. 방향을 집어 보이는 것은 ‘가리키다’예요.
6. 안 ‘아니 마셨어요’의 줄임말이라 ‘안’을 써요. 빼도 문장이 되지요.
7. O ‘설겅이’가 아니라 ‘설거지’가 바른 말이에요.
8. 금세 ‘지금 바로’라는 뜻의 말은 ‘금세’예요.
9. ③ 생일은 기억하지 못한 것이니 ‘잊어버려서’라고 써야 해요.
10. 앓 ‘-지’ 뒤에는 ‘앓’을 써요. ‘먹지 않아요’가 맞아요.
11. ② 편지나 물건을 보내는 것은 ‘부치다’예요. 우표를 달라붙게 하는 것은 ‘붙이다’예요.
12. 반드시 → 반듯이 바르게, 곧게라는 뜻은 ‘반듯이’예요. ‘반드시’는 ‘꼭’이라는 뜻이에요.
13. ④ 정답을 골라내는 것은 ‘맞히다’예요.
14. 돼 ‘안 해요’처럼 ‘해’가 어울리니 ‘돼’를 써요. ‘안 돼요’가 맞아요.
15. X ‘하고 싶어요’처럼 ‘하’가 어울리니 ‘되고 싶어요’라고 써야 해요.
16. ④ ‘꼭’이라는 뜻이니 ‘반드시’가 맞아요. 나머지는 ‘가리켰어요’, ‘붙였어요’, ‘마쳤어요’로 써야 해요.
17. 몇일 → 며칠, 낳아서 → 나아서, 잃어버리고 → 잊어버리고 낱자는 ‘며칠’, 병이 없어지는 것은 ‘낳다’,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‘잊어버리다’예요.
18. 엄마가 나에게 줄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. / 동생이 손가락으로 무지개를 가리켰어요. ‘가르치다’는 알려 주는 일, ‘가리키다’는 집어 보이는 일에 맞게 쓰면 정답이에요.
19. 그 말을 빼고 읽어 본다. 빼도 말이 되면 ‘안’, 어색하면 ‘앓’이다. ‘안’은 ‘아니’의 줄임말이라 빼도 문장이 되고, ‘앓’은 ‘-지’ 뒤에 와서 빼면 문장이 어색해져요.
20. ① ‘며칠’, ‘맞췄어요’(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끼움) 모두 바르게 썼어요. ‘금새→금세’, ‘잃어버려서→잊어버려서’(이름은 기억하는 것), ‘설겅이→설거지’로 고쳐야 해요.